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0 호, 2020 년-5 호 4 월 8 일

코로나 19 관련 긴급 국민의식조사 결과

(4 월 4-5 일 전국 성인남녀 1,000 명 대상 ARS-RDD, 리서치뷰)

응답자의 94.5%,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필요하다.

응답자의 94.1%,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 경험? 있다 32.4% vs 없다 67.6%

유형별 부작용의 심각성? 사회적 부작용 64.1% > 경제적 부작용 63.4% >

정신적 부작용 50.8% > 신체적 부작용 49.3%

자가격리의 가장 어려운 점? 가족간 접촉금지 30.6% > 감염에 대한 두려움 20.3% >

생필품 부족 14.8 % > 외로움 14.6% > 지겨움 10.9%

확진자 이동경로 상세공개에 대해? 인권침해 7.9% vs 불가피한조치 88.3%

코로나 19 정부정책 신뢰도? 신뢰 75.9% vs 불신 24.1%

코로나 19 근본원인이 기후변화 때문? 동의 84.6% vs 비동의 15.4%

코로나 19 근본원인이 과도한 생태계 파괴때문? 동의 84% vs 비동의 16%

코로나 19 대규모 전염사태 근본원인?

1)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접촉 37.2%, 2) 감염병 대책과 위생관리체계 실패 31.6%

코로나 19 관련 가장 시급한 대책?

1) 의료체계 등 시스템구축 25.8%, 2) 생태계 보호정책 25%, 3) 위생관리 생활습관 24.2%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02-741-2700

1 조사배경

- 1)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지역사회감염이 폭증하면서 국경과 지역 봉쇄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 2) 이에 국내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파악하여 공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코로나 19> 사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이 경험을 겪은 후 우리사회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의식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 3)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의 필요성, 실천정도, 부작용(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시행기간 등과 자가격리의 어려움, 지키기 힘든 개인위생지침, 정부정책 신뢰도, 근본원인과 향후 대책 등 모두 17 개 항목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20 년 4 월 4 일과 5 일 양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 4) 설문조사 설계
 - ① 기획 및 주관;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백도명, 황정화)
 - ② 조사 기간; 2020 년 4 월 4 일(토)~5 일(일) 2 일간
 - ③ 조사 대상; 18 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 천명
 - ④ 조사 방법; RDD 휴대전화(80%) & 유선전화(20%),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전화조사, 응답률 6.1%
 - 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oint
 - ⑥ 보정 방법; 2020 년 3 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 ⑦ 조사 기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 (대표 안일원)

2 조사결과 요약 (14 개 항목으로 정리)

1.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매우	다소	별로	전혀		
68.4	26.1	3.4	2.1	94.5	5.5

2.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정도

실천하는 편		실천 못 하는 편		실천	비실천
매우 철저하게	어느 정도	별로	전혀		
45.0	49.1	4.1	1.8	94.1	5.9

3. 사회적 거리 두기 부작용 경험

있음	Gap	없음
32.4	-35.1	67.6

4.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

경제적 부작용	신체적 부작용	정신적 부작용	사회적 부작용
37.7	30.9	21.2	10.3

5. 유형별 부작용 정도

	심각		심각하지 않음		심각	심각하지 않음
	매우	다소	별로	전혀		
정신적 부작용	13.9	36.9	36.6	12.6	50.8	49.2
신체적 부작용	10.6	38.7	38.6	12.1	49.3	50.7
경제적 부작용	30.6	32.8	26.4	10.1	63.4	36.6
사회적 부작용	20.7	43.4	28.9	7.0	64.1	35.9

6.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기간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될 때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지방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49.5	18.4	17.0	15.0

7. 자가격리의 가장 어려운 점

가족 간 접촉금지	감염에 대한 두려움	생필품 부족	외로움	지겨움	기타
30.6	20.3	14.8	14.6	10.9	8.8

8. **확진자 이동 경로 상세 공개**

인권 침해	Gap	불가피한 조치	기타
7.9	-80.4	88.3	3.8

9. **가장 지켜지지 않는 개인위생지침**

타인과 2미터 거리 두기	손으로 눈·코·입 안 만지기	마스크 착용	30초간 비누로 손 씻기	기타
33.8	25.8	18.7	12.3	9.3

10. <코로나19> 정부 정책 신뢰도

신뢰		불신		신뢰	불신
매우	다소	별로	전혀		
41.6	34.3	14.6	9.5	75.9	24.1

11. <코로나19>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매우	다소	별로	전혀		
43.2	41.4	10.6	4.8	84.6	15.4

12. <코로나19> 근본 원인이 과도한 생태계 파괴 때문이다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매우	다소	별로	전혀		
44.9	39.1	11.6	4.4	84.0	16.0

13. <코로나19> 대규모 전염사태 근본 원인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접촉	감염병 대책과 위생관리 체계 실패	인구집단 밀집생활	급격한 기후변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분업화	사람들의 빈번한 이동	공공의료 체계의 약화	기타
37.2	31.6	8.3	5.4	4.8	3.7	1.6	7.3

14. <코로나19> 관련 가장 시급한 대책

의료체계 등 시스템구축	생태계 보호정책	위생관리 생활습관	기후변화를 막기위한정책	과도한 국가 간이동제한	기타
25.8	25.0	24.2	15.0	5.5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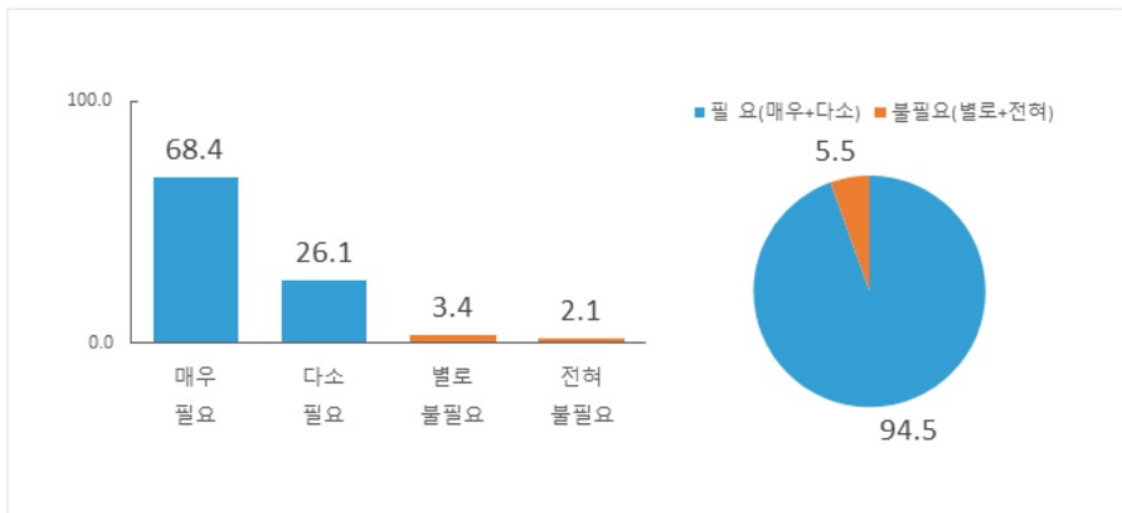
3 상세 조사결과 및 분석 (17 개 세부 항목으로 정리)

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필요성은?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번, 매우 필요하다
- ②번, 다소 필요하다
- ③번, 별로 필요 없다
- ④번, 전혀 필요 없다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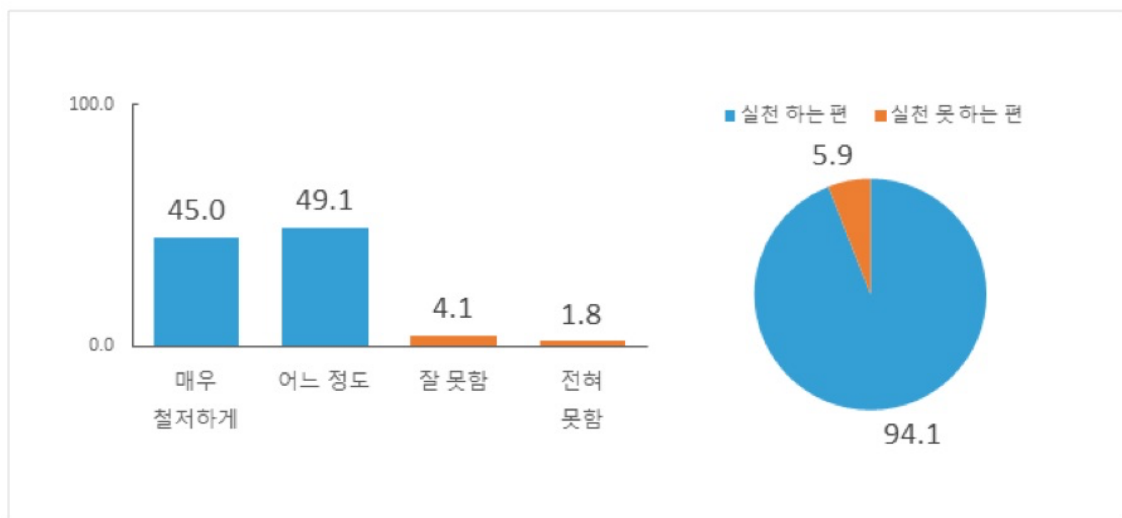
- A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 94.5%(매우 68.4%, 다소 26.1%) vs 필요 없다 5.5%(별로 3.4%, 전혀 2.1%)’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B <코로나19> 예방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필요성에 대해 전 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남성(93.4%)보다 △여성(95.6%)에서 다소 높았음
- C 세대별로는 △40대(97.5%) △70대+(96.6%) △30대~50대(95.2%) △18/20대(91.8%) △60대(90.5%) 순으로,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비교적 높고, 18/20대 청년층에서 비교적 낮았음
- D 경제 수준별로는 △상+중상층(90.8%)보다 △중하층(96.5%) △하층(93.3%)에서 다소 높았음

2)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는?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선생님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번, 매우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 ②번,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
- ③번,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 ④번,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② 결과 요약

- A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정도는 '실천하고 있다 94.1%(매우 45.0%, 어느 정도 49.1%) vs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5.9%(별로 4.1%, 전혀 1.8%)'로,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B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 계층 모두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남성(91.9%)보다 △여성(96.2%)에서 다소 높았음
- C 세대별로는 △70대+(97.4%) △50대(95.1%) △40대(95.0%) △30대(93.2%) △18/20대(92.2%) △60대(91.7%) 순으로,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높았음
- D 경제 수준별로는 △상+중상층(92.2%)보다 △하층(94.3%)에서 다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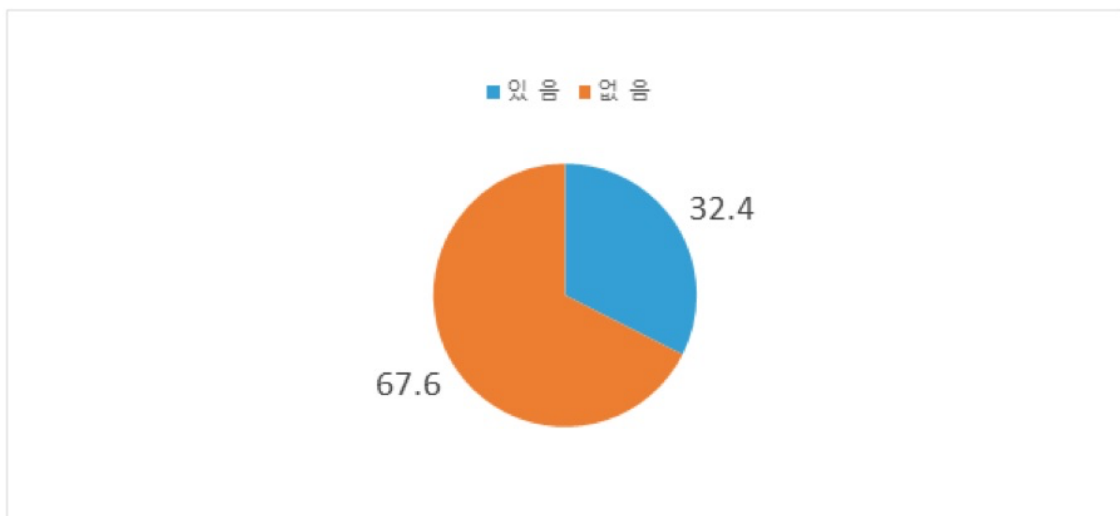
3) <사회적 거리두기> 부작용 경험여부는?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선생님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번, 있다

②번, 없다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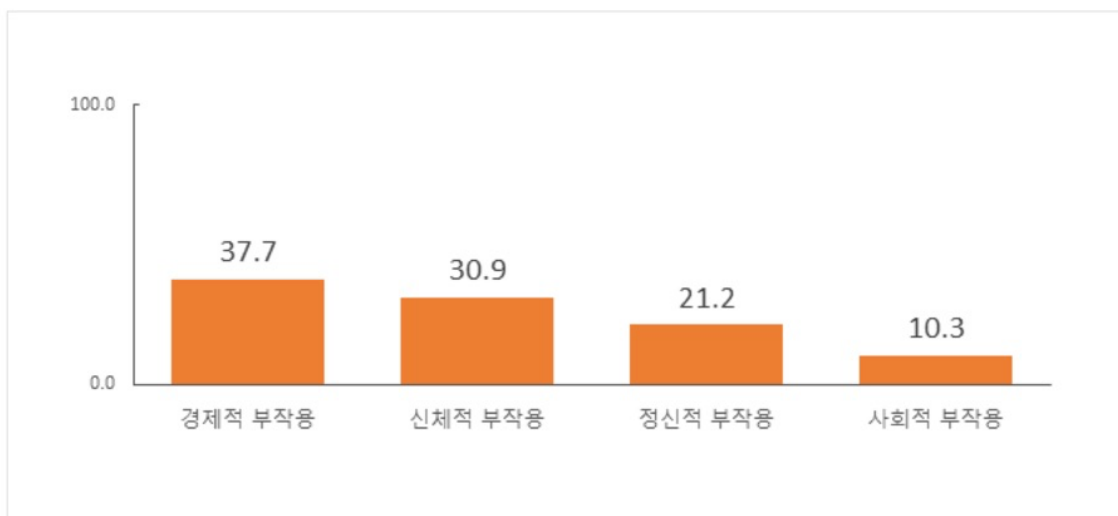
- A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부작용 경험 여부는 ‘있다(32.4%) vs 없다(67.6%)’로, 없다는 응답이 2.1배 높았음
- B 부작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34.7%) △18/20대(36.0%) △30대(35.5%) △경제 수준 상+중상층(35.3%) △대학원 이상(40.1%) 그룹에서 전체 평균을 웃돌았고,
- C 부작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69.8%) △70 대+(77.3%) △경제 수준 하층(71.0%) 그룹에서 비교적 높았음

4)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러 부작용 중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번, 고립감, 스트레스, 사회적 불신증가와 같은 정신적 부작용
- ②번, 신체리듬손상, 마스크 사용 불편함 등 신체적 부작용
- ③번, 금전적 손실, 업무수행 지장 등 경제적 부작용
- ④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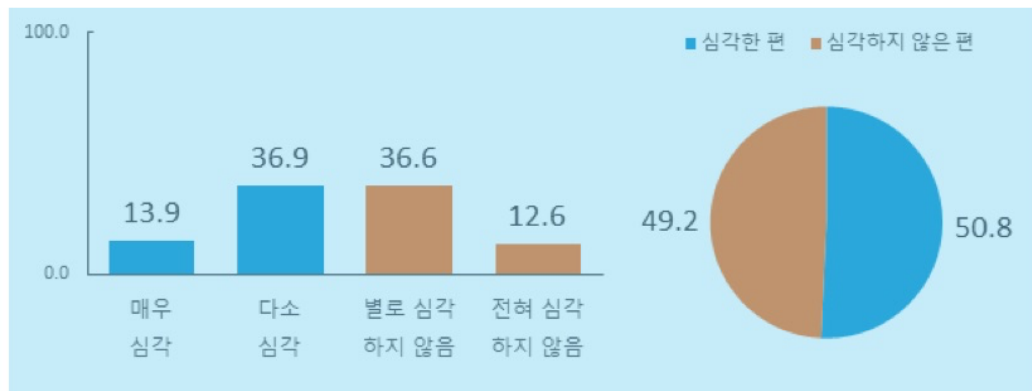
- A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경제적 부작용(37.7%) △신체적 부작용(30.9%) △정신적 부작용(21.2%) △사회적 부작용(10.3%) 순으로, 경제적 부작용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음
- B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경제적 부작용(48.9%) △신체적 부작용(23.1%) △정신적 부작용(22.3%) △사회적 부작용(5.7%) 순으로, 경제적 부작용을 꼽은 응답이 거의 절반에 달했음
- C 경제적 부작용은 △남성(42.3%) △30대(41.8%) △40대(43.7%) △50대(40.4%) 등 경제활동이 왕성한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 D 신체적 부작용은 △여성(35.6%) △18/20 대(34.6%) △70 대+(41.6%)에서 비교적 높았음

5) <사회적 거리두기> 정신적 부작용 정도는?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선생님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고립감, 스트레스, 사회적 불신증가’ 같은 정신적 부작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번, 매우 심각하다
 ②번, 다소 심각하다
 ③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번,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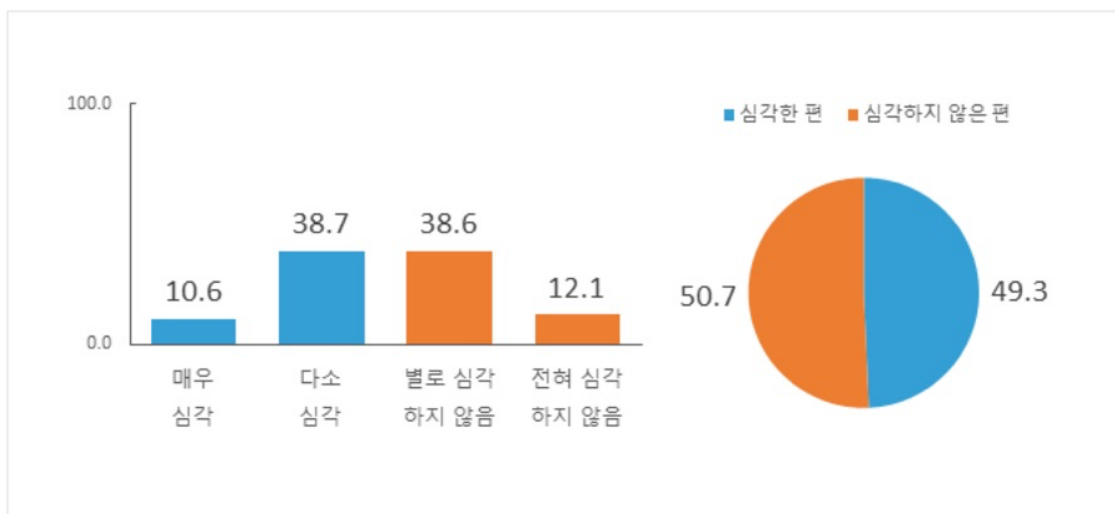
- A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정신적 부작용은 ‘심각한 편 50.8%(매우 13.9%, 다소 36.9%) vs 심각하지 않은 편 49.2%(별로 36.6%, 전혀 12.6%)’로,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인 1.5%p 소폭 높았음
- B 정신적 부작용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은 △60 대(68.5%) △70 대+(65.8%) △경제 수준 하층(65.4%) △중졸 이하(71.0%) 그룹에서 특히 높았음

6)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적 부작용 정도는?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선생님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신체리듬손상, 마스크 사용 불편함’ 등 신체적 부작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번, 매우 심각하다
 ②번, 다소 심각하다
 ③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번,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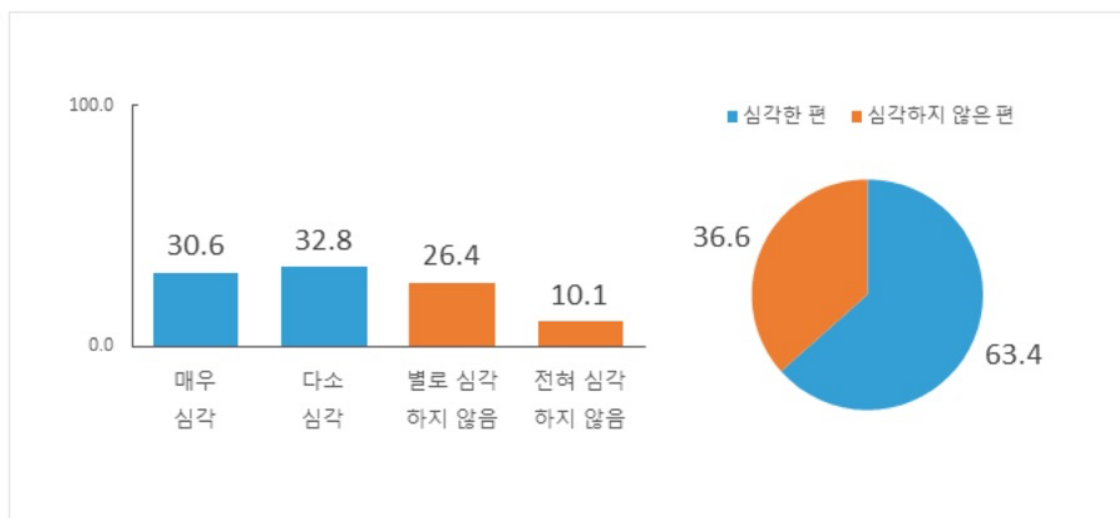
- A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은 ‘심각한 편 49.3%(매우 10.6%, 다소 38.7%) vs 심각하지 않은 편 50.7%(별로 38.6%, 전혀 12.1%)’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인 1.4%p 소폭 높았음
- B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은 △여성(53.0%) △60 대(58.6%) △70 대+(57.0%) △경제 수준 하층(58.6%) △중졸 이하(69.0%) 그룹에서 과반을 상회했음

7)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적 부작용 정도는?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선생님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금전적 손실이나 업무수행 지장’ 등 경제적 부작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번, 매우 심각하다
 ②번, 다소 심각하다
 ③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번,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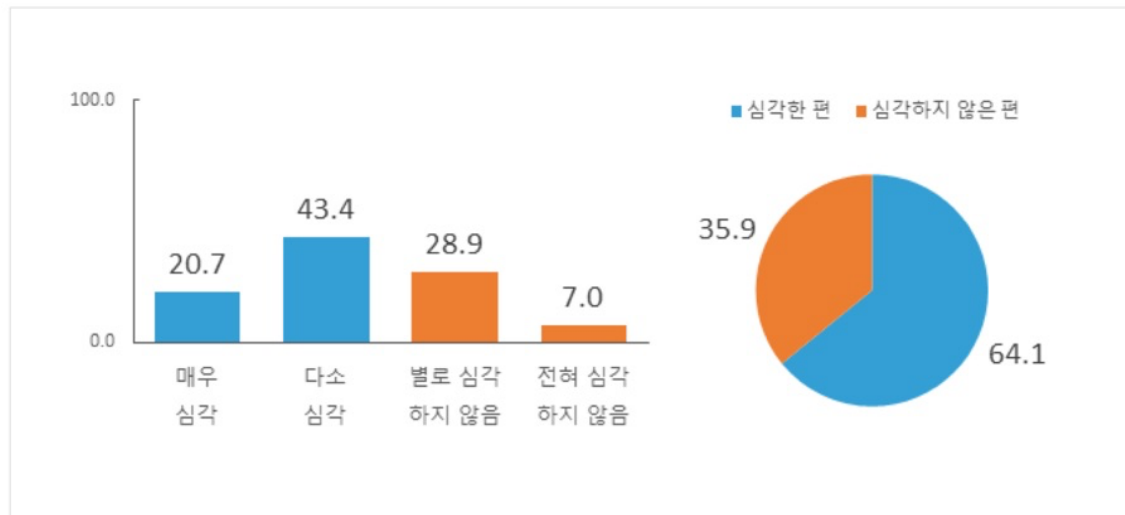
- A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은 ‘심각한 편 63.4%(매우 30.6%, 다소 32.8%) vs 심각하지 않은 편 36.6%(별로 26.4%, 전혀 10.1%)’로,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이 26.9%p 높았음
- B 전 계층에서 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이 더 높은 가운데 △60 대(73.9%) △경제 수준 하층(74.8%) △중졸 이하(78.2%) 그룹에서 70%를 상회했음

8)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부작용 정도는?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선생님이 보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번, 매우 심각하다
- ②번, 다소 심각하다
- ③번,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④번,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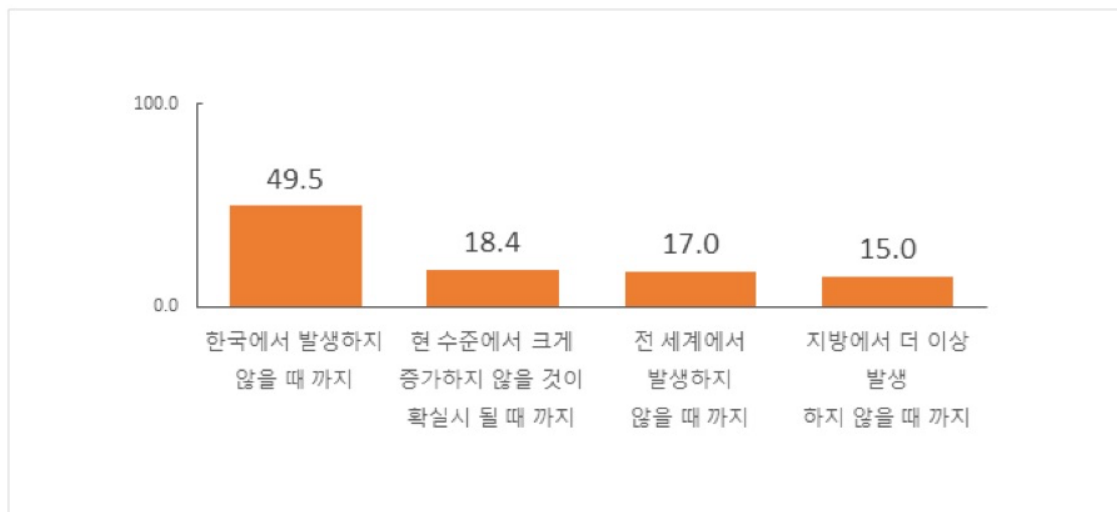
- A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심각한 편 64.1%(매우 20.7%, 다소 43.4%) vs 심각하지 않은 편 35.9%(별로 28.9%, 전혀 7.0%)’로,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이 28.3%p 높았음
- B 전 계층에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이 더 높은 가운데 △60 대(69.7%) △70 대+(71.9%) △대구/경북(71.1%)에서 특히 높았음

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은?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②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③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는 지방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④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될 때까지



② 결과 요약

- A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기간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49.5%) △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될 때까지(18.4%) △전 세계에서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17.0%) △지방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15.0%) 순으로 나타났음
- B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음

10) 강제적 혹은 자발적 '자가격리'시 어려운 점?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14일간 강제적 혹은 자발적 '자가격리'를 할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번, 가족 간 접촉금지
- ②번, 외로움
- ③번, 생필품 부족
- ④번, 감염에 대한 두려움
- ⑤번, 지겨움
- ⑥번, 기타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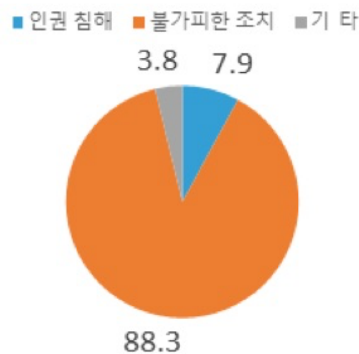
- A 14일간 강제적 혹은 자발적 '자가격리'를 할 경우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가족 간 접촉금지(30.6%) △감염에 대한 두려움(20.3%) △생필품 부족(14.8%) △외로움(14.6%) △지겨움(10.9%) △기타(8.8%) 순으로 나타났음
- B 대부분 계층에서 자가격리 시 '가족 간 접촉금지'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가운데 △여성(32.4%) △30대(34.7%) △40대(37.2%) △50대(32.9%) △60대(33.4%) 등에서 30%를 상회했음
- C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꼽은 응답은 △여성(22.0%) △50대(22.9%) △60대(21.5%) △70대+(22.9%)에서 20%대로 비교적 높았음
- D 특히 70 세 이상 고령층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22.9%) △생필품 부족(21.7%) △외로움(21.5%) △가족 간 접촉금지(20.4%) △지겨움(6.8%) △기타(6.8%) 순으로 꼽았음

11) 확진자 이동 경로 상세 공개 괜찮나?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번,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한다
- ②번, 추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 ③번, 기타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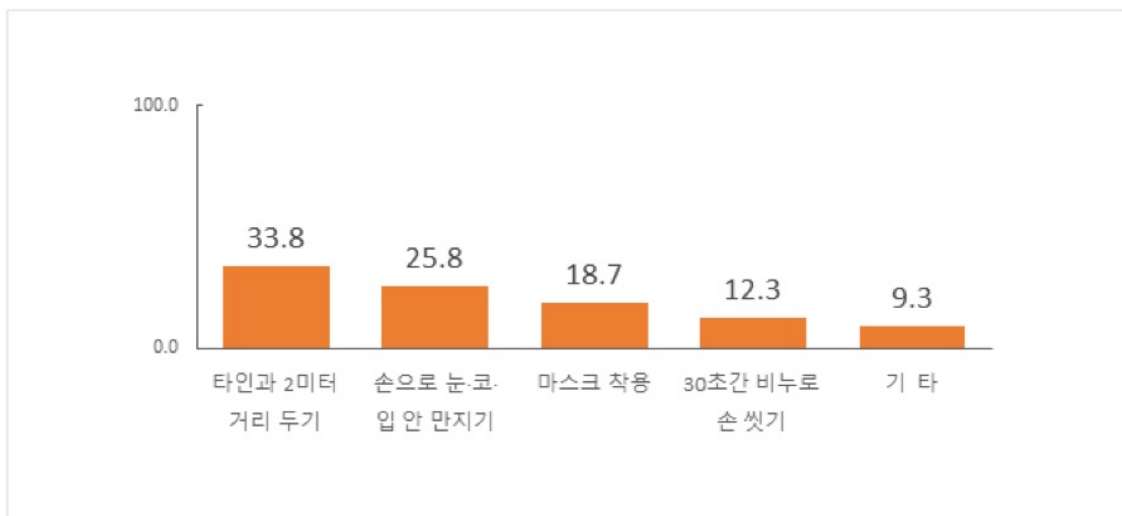
- A <코로나 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다(7.9%) vs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88.3%)’로, ‘추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B 전 계층에서 모두 ‘추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80~90%에 달했음
- C 반면,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응답은 △18/20 대(15.0%) △경제 수준 상+중상층(19.1%) △대학원 이상(11.1%) 그룹에서 두 자릿수로 비교적 높았음

12) 가장 지켜지지 않는 개인 위생지침은?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코로나19 예방 관련 개인위생지침 중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번,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②번, 30초간 자주 비누로 손 씻기
- ③번, 손으로 '눈·코·입' 안 만지기
- ④번, 타인과 2미터 거리 두기
- ⑤번, 기타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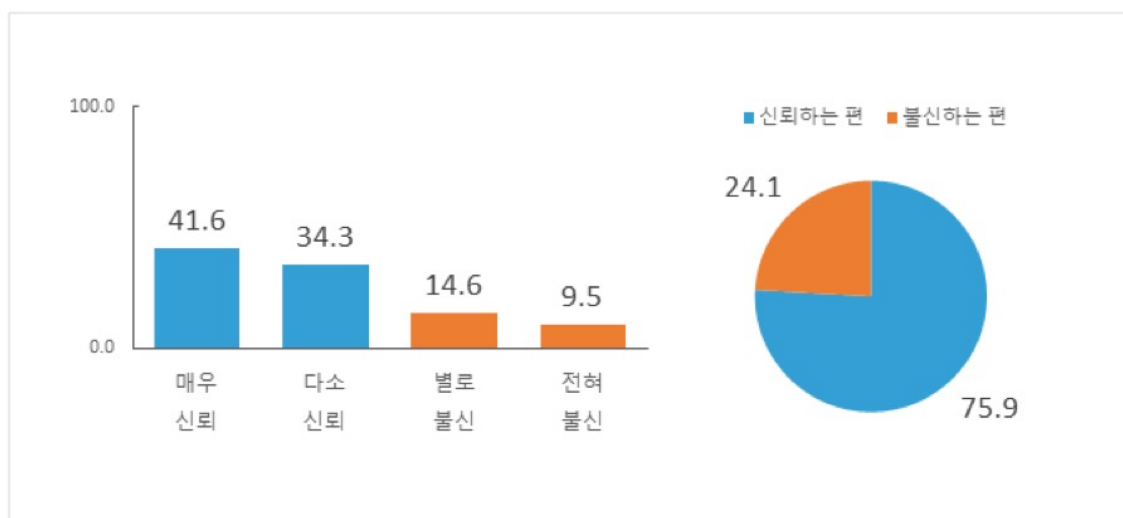
- A <코로나19> 예방 관련 개인위생지침 중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문은 △2미터 거리 두기(33.8%) △손으로 눈코입 안 만지기(25.8%) △마스크 착용(18.7%) △30초간 비누로 손 씻기(12.3%) △기타(9.3%) 순으로 나타났음
- B 대부분 계층에서 '타인과 2미터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가운데 △여성(36.3%) △18/20대(38.7%) △30대(37.3%) △40대(41.1%) 등 여성과 젊은 층에서 비교적 높았음
- C '손으로 눈코입 안 만지기'라는 응답은 △60 대(31.5%), '마스크 착용'은 △18/20 대(22.5%), '30 초간 비누로 손 씻기'는 △70 대+(18.7%)에서 각각 높았음

13) <코로나 19> 관련 정부 정책 신뢰도는?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 중 어떤 입장이십니까?

- ①번, 매우 신뢰한다
 ②번, 다소 신뢰한다
 ③번,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④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결과 요약

- A <코로나19>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신뢰 75.9%(매우 41.6%, 다소 34.3%) vs 불신 24.1%(별로 14.6%, 전혀 9.5%)’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3.1 배 높았음
- B <코로나 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신뢰 68.1% vs 불신 31.9%) △부울경(73.4% vs 26.6%) 등 영남권에서도 신뢰한다는 응답이 2.1~2.8 배 높았음
- C 세대별로는 △40 대(신뢰 78.4% vs 불신 21.6%) △30 대(78.3% vs 21.7%) △60 대(77.8% vs 22.2%) △70 대+(77.0% vs 23.0%) △50 대(75.8% vs 24.2%) △18/20 대(68.4% vs 31.6%) 순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2.2~3.6 배 높았음

14) <코로나 19> 근본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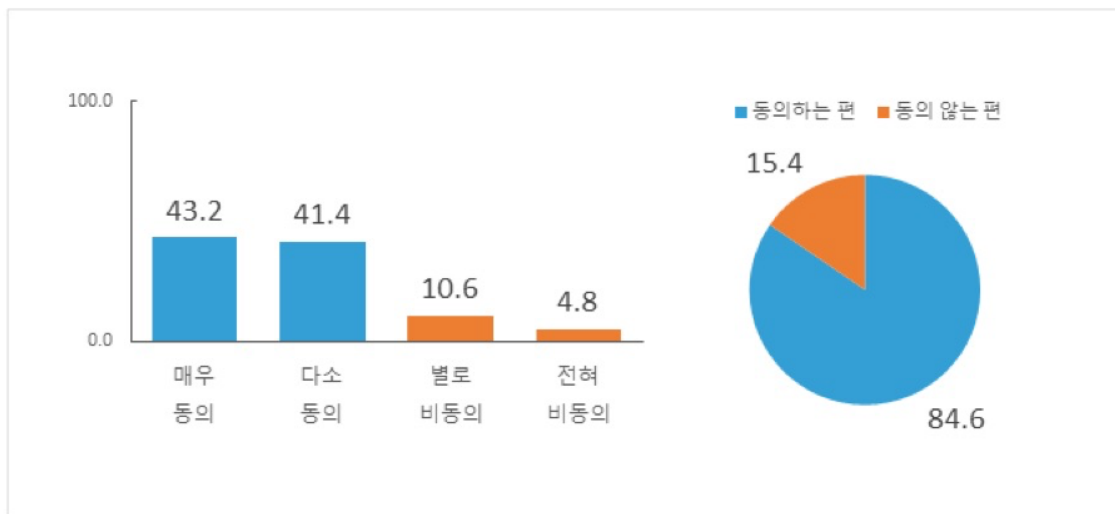
문) 코로나19 사태 근본 원인이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매우 동의한다

②번, 다소 동의한다

③번,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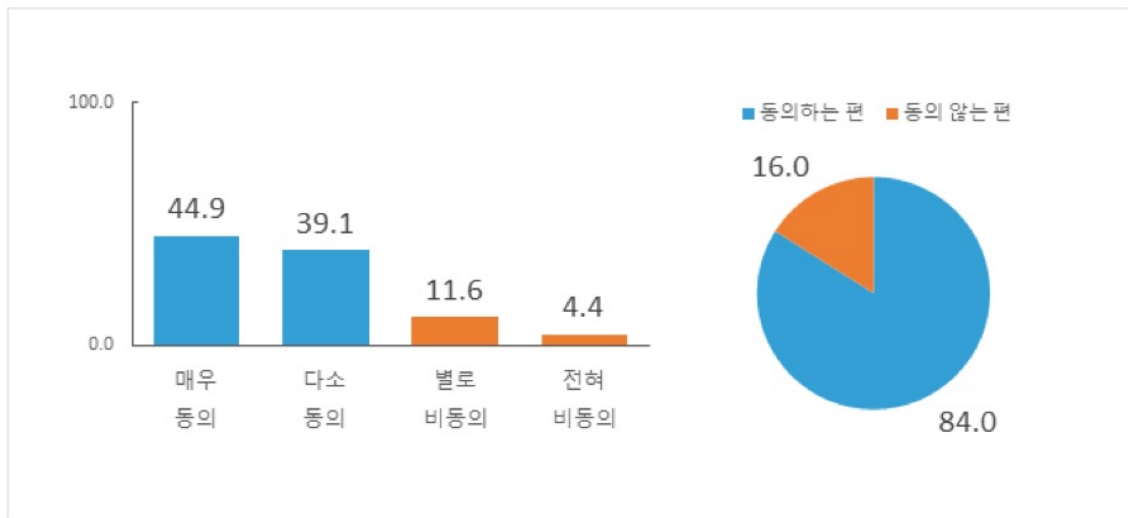
- A <코로나 19>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 84.6%(매우 43.2%, 다소 41.4%) vs 비동의 15.4%(별로 10.6%, 전혀 4.8%)'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5.5 배 높았음
- B 전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여성(동의 89.1% vs 비동의 10.9%) △50 대(89.9% vs 10.1%) △60 대(93.2% vs 6.8%) △70 대+(89.8% vs 10.2%) 등 여성과 50 대 이상 장년층에서 특히 높았음
- C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20 대(동의 69.7% vs 비동의 30.3%)에서 유일하게 30%대로 높아 눈길을 끌었음

15) <코로나 19> 근본원인이 과도한 생태계 파괴 때문이다?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코로나19 사태 근본 원인이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과도한 생태계 파괴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번, 매우 동의한다
 ②번, 다소 동의한다
 ③번,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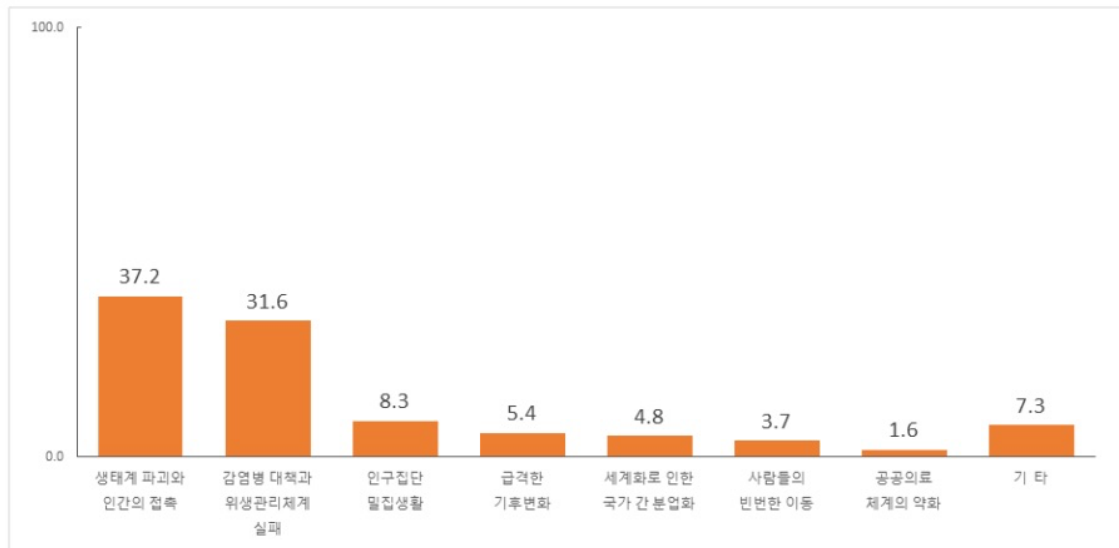
- A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과도한 생태계 파괴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 84.0%(매우 44.9%, 다소 39.1%) vs 비동의 16.0%(별로 11.6%, 전혀 4.4%)’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5.2배 높았음
- B 전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여성(동의 87.5% vs 비동의 12.5%) △50대(91.8% vs 8.2%) △60대(94.0% vs 6.0%) △70대+(89.3% vs 10.7%) 등 여성과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특히 높았음
- C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20 대(동의 65.1% vs 비동의 34.9%)에서 유일하게 30%대로 나타났음

16) <코로나 19> 대규모 전염사태의 근본원인은?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코로나19는 인수공통전염병인데요, 대규모 전염사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번, 야생동물 서식지의 과도한 파괴와 인간의 접촉
- ②번, 감염병 대책과 위생관리체계 실패
- ③번, 너무 많은 인구집단 밀집생활
- ④번,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분업화
- ⑤번, 너무 빈번한 사람들의 이동
- ⑥번, 급격한 기후변화
- ⑦번, 공공의료체계의 약화
- ⑧번, 기타



②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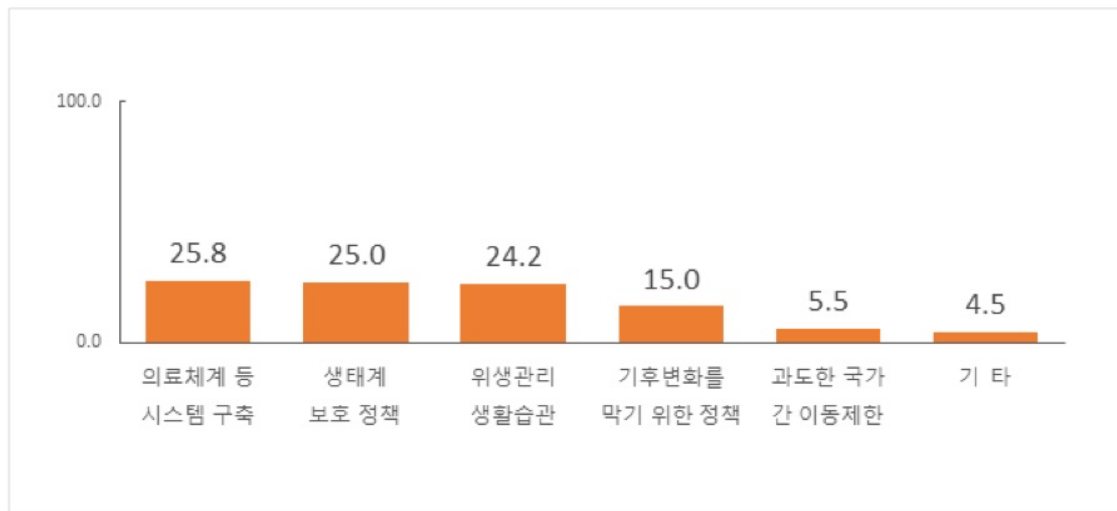
- A <코로나 19> 대규모 전염사태와 관련한 근본 원인으로서는 △야생동물 서식지의 과도한 파괴와 인간의 접촉(37.3%) △감염병 대책과 위생관리체계 실패(31.6%) △너무 많은 인구집단 밀집생활(8.3%) △급격한 기후변화(5.4%)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분업화(4.8%) △너무 빈번한 사람들의 이동(3.7%) △공공의료체계의 약화(1.6%) 순으로 꼽았음

17) <코로나 19>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① 질문 및 결과 그래프 정리

문)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번, 생태계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보호하는 정책
- ②번, 평소 위생관리를 실천하는 생활습관
- ③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 ④번, 필수적인 교류 이외의 과도한 국가 간 이동제한
- ⑤번, 유사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체계 등 시스템 구축
- ⑥번, 기타



② 결과 요약

- A <코로나 19> 관련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유사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체계 등 시스템 구축(25.8%) △생태계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보호하는 대책(25.0%) △평소 위생관리를 실천하는 생활습관(24.2%)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15.0%) △필수적인 교류 이외의 과도한 국가 간 이동제한(5.5%) 순으로 조사됐음

4 평가와 의미

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하여

- ① 우리 국민 10 명중 대부분인 9 명 이상 (응답자의 94.5%)이 <사회적 거리두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7 명 가량 (68.4%) 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생각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 국민 10 명중 9 명이상(94.1%)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천의 정도는 '매우 철저하게 실천한다' 45%, '어느정도 실천한다' 49.1%로 비슷했다.

이번 설문조사가 진행된 2020 년 4 월 4 일과 5 일에 코로나 19 신규감염자가 50 명이내로 줄어들고 있어,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동의 및 참여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국민 10 명중 5 명정도 (49.1%)는 실천은 하지만 '어느정도'만 하고 있고, 5.9%는 실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언제 감염숫자가 크게 늘어날지 안심할 수 없다는 보건당국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 ②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 10 명중 3 명정도(32.4%)가 경험하고 있었는데, 37.7%가 '금전적 손실, 업무수행 지장'고 같은 경제적 부작용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고, 30.9%는 '신체리듬손상, 마스크 사용 불편함'과 같은 신체적 부작용을, 21.2%는 '고립감, 스트레스, 사회적 불신증가'와 같은 정신적 부작용을, 10.3%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족'의 사회적 부작용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4 가지 유형별 부작용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각각의 조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족'의 사회적 부작용 (64.1%)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전적 손실, 업무수행 지장'의 경제적 부작용 (63.4%)이 다음으로 심각했다. 이 두 유형의 경우 국민 10 명중 6 명 이상이 매우 또는 다소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의 두배에 달했다. 정신적 부작용이나 신체적 부작용의 경우 '심각하다'와 '심각하지 않다'가 절반씩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4 가지 유형별 부작용중에서 특히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이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③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9.5%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때까지'로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될 때까지' 18.4% '전 세계에서 발생하지

않을때까지' 17.0%, '지방에서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때까지' 15%의 순서로 비슷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정책이 코로나 19 문제해결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 코로나 19의 국내 유행이 종식될때까지 계속하자고 국민 10명중 5명가량(49.5%)이 생각하고 있고, 국민 10명중 2명가량(18.4%)는 부작용과 피로도가 상당해 현 수준이 유지되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하자는 의견이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국민 10명중 2명가량(18.4%)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2) 자가격리, 확진자 정보공개, 개인위생지침 및 정부정책 신뢰에 대하여

- ① 자발적 또는 강제적 <자가격리>를 할 경우 가장 어려운 점에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가족간 접촉금지'(30.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감염에 대한 두려움'(20.3%)로 많이 꼽았다. 기타를 제외한 5가지 선택지중에서 이 두가지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국민 10명중 5명(50.9%)이었다. 14.8%는 '생필품 부족'을 가장 힘든 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족의 사회적 부작용과 연동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어 '외로움' 14.6%, '지겨움' 10.9%였는데 이 둘을 자가격리중의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봐 합하면 25.5%로 이 점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신적 부작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동선을 상세히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인 88.3%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고 7.9%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며 사망자가 속출하는 신종 감염병 문제라는 점에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동선을 공개해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인식하고 불가피하다고 이해하는 응답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의 여러 인권 침해적 요소들이 사회적 약자이자 사회적 소수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비록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인권침해적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는 조사결과로 보인다.
- ③ 가장 지켜지지 않는 개인위생지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33.8%가 '타인과 2미터 거리두기'를 꼽았다. 이어 25.8%가 '손으로 눈,코,입 안 만지기'를 꼽았다. 이 항목들도 앞의 질문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실제 실천에서는 '어느정도'만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 ④ <코로나 19>관련 정부정책의 신뢰에 대한 질문은, '신뢰' 75.9% vs '불신' 24.1%로

나타나 국민 4 명중 3 명은 신뢰하고 1 명은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이러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답변의 흐름이 꽤 흥미로웠을 것이다. **대구에서의 폭발적 증가, 유럽과 미국에서의 증가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 그리고 일본정부의 대응변화 등의 주요 단계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여부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3) <코로나 19>의 근본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 ① '기후변화'와 '과도한 생태계 파괴'가 코로나 19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각각 84.6%와 8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동意的는 각각 15.4%와 16%였다. 국민 10 명중 8-9 명인 대다수가 코로나 19 사태가 '기후변화'와 '과도한 생태계 파괴' 때문에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국민 다수가 코로나 19 사태의 발생원인에 대해 깊은 성찰과 사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결과이고,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까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기후변화'와 '과도한 생태계 파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 ② 코로나 19 가 대규모 전염사태로 악화된 근본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7.2%가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접촉'을 꼽았고, 이어 31.6%가 '감염병 대책과 위생관리 체계 실패'를 꼽았다. **이는 다수 응답자들이 코로나 19 의 발생원인으로서 '생태계파괴와 인간의 접촉'을 확산원인으로서 '감염병 대책과 위생관리 체계 실패'를 차례로 짚은 것으로 이해된다.**

- ③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사회가 어떤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이 경험을 통해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어떤 변화가 필요하느냐? 는 질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의료체계 등 시스템 구축' 25.8%, '생태계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보호하는 정책' 25%, '평소 위생관리를 실천하는 생활습관' 24.2%의 순서로 많았다.

이 3 가지 응답의 차이가 크지 않고 거의 비슷해 응답자들은 이 세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꼽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개인적으로 '위생관리 실천 생활습관'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나 국가단위에서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의료체계 구축'가 필요하며 국제적, 지구적 차원에서는 '생태계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